

로컬플러그

원광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 우선협상 대학 최종 선정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 우선협상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오는 3월부터 2021년 2월 까지 5년이며, 정부와 전라북도로부터 매년 5억 원씩 모두 2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사업은 대학생과 지역창업 대상 One-Stop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고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20개 대학이 우선협상 대학에 선정됐으며, 전북에서는 원광대가 유일하다.

원광대는 저학년 때부터 특성화된 진로지도실 실시하고, 학년 및 전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비롯해 청년 내일찾기패키지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고용정책과도 적극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며, 다른 학교 학생 및 지역청년에게도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농기센터 지역쌀 육성 시범추진

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일)는 FTA 체결 후 농업인의 소득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명품 군산쌀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년간 쌀 수출 시범단지과 전복쌀 품질관리 시범단지를 각각 100ha씩 조성해 전국 최고 규모인 약 500톤의 쌀을 수출했다.

올해 3억5천만원을 투입해 신규사업으로 지난해 3월 쌀 지리표적시제 등록 후 지리적특산물 생산자협단지를 조성, 쌀 직거래 농업인을 중심으로 고품질쌀 생산 상품화 시범단지를 조성해 쌀 재배농업인들이 생산할 재배한 쌀을 도시민에게 직거래로 출하해 특색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시 설 명절 과대포장집중단속

익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2일~5일까지 과대포장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설 명절을 맞아 대형 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시민들을 눈속임하는 과대포장 제품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단속을 추진했다.

단속대상은 제과류, 농산물류, 완구류, 잡화류, 건강식품 등 명절 선물류로 시는 포장 횟수, 공기비율, 재질 등 포장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결과 포장공간비율이나 포장횟수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조업체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미룡동 평생학습관 주차난

신축공사로 주민들 불편 호소...쓰레기 환적장에 주차시설 요구



군산시가 미룡동에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미룡동은 지난해 말 기준 인구 1만60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6개의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밀집해 있고 용문초, 금강중 그리고 군산대학교가 자리하고 있어 유동 인구는 2만 여명에 달한다. 이에 따른 행정수요도 높은 실정이다. 시는 주민센터 대안으로 사업비 39억원을 들여 미룡동 903-1번지 1580㎡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평생학습관 신축사업을 진행중이다.

오는 8월 사업이 완료되면 1층에는 치안센터와, 간단한 민원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복지공간을 구성해 그동안 주민센터가 없어 소외됐던 미룡동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곳은 담초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부지로 평생학습관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부터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다.

더욱이 이곳에는 활용기차가 멀어지는 쓰레기적환장과 완충녹지가 자리하고 있어 학습관이 완공될 경우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주민들은 쓰레기적환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 또는 축소시키고 이곳에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박모(42·여)씨는 "평생학습관이 들어서면 이용 주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불필요하게 자리한 완충녹지를 제거하고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적환장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쓰레기적환장을 이전 필요성에 공감 한다"면서 "인근지역에 대한 공유지 조사를 통해 쓰레기적환장을 이전할 부지를 확보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시, 기초생활보장사업 559억원 예산 투입

1만 7천여명 수급자 생계·의료·주거 등 급여종류별 맞춤형 지원 실시

익산시가 올해 기초생활보장사업에 559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에 나선다. 이는 시 전체 예산 9,308억 8,200만원의 6%, 사회복지예산 3,098억 600만원의 18%를 차지하며, 작년 집행금액 488억 8,600만원 대비 70억 2,300만원(14.3%)이 더 늘어났다. 익산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1,305가구 17,439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5.7%에 이르며 작년 대비 1,490가구 2,478명이 증가했다.

시에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을 위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양육급여 등 급여종류별로 맞춤형 급여 지원을 실시한다. 기초생활보장분야 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생계급여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13,500명에게 총 428억6,700만원을 매월 20일에 지원한다. 값싼 정

부양곡은 생계급여수급자(2,685가구)와 차상위계층(480가구)에게 6만포(10kg 20kg) 11억3,800만원 상당의 쌀을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직접 배달해 준다. 생계급여수급자의 해산급여는 자녀 출산 시 1인당 80만원씩과 장제급여는 사망 시 1인당 75만원씩 전체 9,400명에게 2억8,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수급자중 비자가 7,644가구에 현금으로 85억8,600만원을 지원하고, 자가 376가구에게는 지방고치기, 도배·장판 깔기, 주방개보수 등 집수리사업비 20억7000만원을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실시한다.

교육급여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 4,100명에게 분기별로 수업료, 부교재비, 교과서대 등 1억700만원과 시 자체시책인 수학여행지원사업으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중 고등학생 350명

에게 7,0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민?관협력 교육복지시책인 청소년?전사업 일환으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중 청소년?전사업 아동 청소년 120명에게 1억7,400만원을 매월 초등학생 5만 원과 중·고등학생 15만원씩 청소년 비전카드에 충전하여 1년간 지원한다. 의료급여수급자 1만796가구 1만6,367명에게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예방·재활 등 건강한 생활을 위해 본인부담금, 장애인 보장구 등 의료급여기금 6억8,000만원으로 의료급여예비를 지급한다.

시청 기초생활과 관계자는 "작년 7월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의 개인별 욕구에 맞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누수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원광대 '무박 2일 창작마라톤'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는 지난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교내 송산기념관에서 '무박 2일 창작마라톤'인 WINNER LINCATHON을 개최했다.

링크톤은 원광대 WINNER LINC 사업단이 만든 마라톤(Marathon)과 WINNER LINC의 합성어로 약 42시간에 걸친 무박 2일 동안 한 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펼쳐는 창작 활동을 의미하며, 대회 참가자들은 구상한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구체화하고,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 시제품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링크톤은 아이디어, 기술,

디자인을 한자리에서 만나게 함으로써 전공의 경계를 뛰어넘는 아이디어 융합을 목적으로 시행했다.

원광대 LINC사업단은 전국 최초로 진행된 무박2일의 창작마라톤인 워너링크톤을 연 2회로 확대 실시하고, 계열을 뛰어넘는 창작 활동 지원으로 창업 및 창업교육을 장려해 창조경제시대에 맞는 인재를 대폭 양성함으로써 원광대의 창업교육 모토인 '1학과 1창업'과 일맥상통하는 워너링크톤을 통해 산학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 어갈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2개단지 확정

군산시가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에 올해 2개단지가 확정돼 친환경농업 생산체계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 공모로 진행된 이 사업은 전국 20개 경영체가 공모했으며, 공개발표회를 거쳐 평가 막바지까지 전국 각 시군의 치열한 유치 경쟁 속에 일취일 성과이다.

이번에 확정된 2개단지는 옥구이곡지구의 한반도농업회사법인(대표 전호봉)과 서수 마포지구의 중수비영농조합법인(대표 김형열)이다.

옥구이곡지구는 참여농가 153명, 친환경인증면적 72.5ha로 연간 780톤의 친환경쌀을 생산하고 있다. 서수 마포

지구는 참여농가 36명, 친환경인증면적 29.4ha로 연간 145톤의 친환경쌀을 생산해 옥구농협, 동문산 농협 등과 계약재배 출하를 하고 있다. 이들 지구는 10여년 넘게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경력과 노하우가 많은 단지로 군산시 친환경 쌀 생산의 선도단지이다.

이들 단지는 친환경농업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40억(국비 12억, 도비 8억, 시비 14억, 자담 8억) 중 32억을 지원받게 되며 보조금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친환경농산물 생산 등 공동 관리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 친환경농업 교육 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군산=문정근기자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회현·대야RPC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16년도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에 회현RPC와 대야RPC 2개소가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은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산물벼 매입 확대를 위해 건조·저장시설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시는 올해 사업비 55억2900만원을 투입해 연내 완공을 목표로 박

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회현농협 RPC에는?저온창고(330㎡) 1동과 건조기 (30톤) 2기가 신설되며, 대야농협 RPC는 노후화된 시설이 현대화된 가공시설로 탈바꿈 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현미 가공은 시간당 9톤, 백미 가공은 7.5톤, 포장부는 15톤으로 시설 능력이 확대된다.

/군산=문정근기자

문제는 싱크대다

Why?

“씨서라” 사용해야 하는가

- 싱크대 배수통 외오래 찌든때 외 막힘
- 스물~스물 올라오는 음식물과 불쾌한 냄새
-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를 속속 하고 싶다면
- 믿을수 있는 국산, 특허 제품
-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 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

“씨서라” 실제 설치!

청소액 [막스]

막스 황색액 (500-1000ml)은 배수구 안쪽의 찌꺼기를 녹여주는 용제로, 용해된 찌꺼기는 물과 함께 흘러내려 배수구를 깨끗하게 합니다.

막스 황색액 사용 시 주의사항

- 막스 황색액은 산성인 용제이므로,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막스 황색액은 산성인 용제이므로, 금속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막스 황색액은 산성인 용제이므로, 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막스 황색액은 산성인 용제이므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수입된 물이 배수구가 막히지 않고, 위생에 지장없이 영구적용

여성에게 적합한 설치를 위해 설계

식용액 사용과 열매에서 제형 된것